

본 브리핑은 페로타임즈 편집국에서 매주 발간하는 Report입니다.
원료, 가격, 해외동향 등을 유료회원에게만 제공하여 드립니다.

주간 시황 Report

2020. 11. 18. 제 34 호



1. 11월 첫주 글로벌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 철광석 강세 지속 전망
철스크랩 공급제한, 수요건조
철강재 중국 강세 '거품' 주의
2. 철광석 : 예상 빗겨간 반등...글로벌 철강 수요 및 생산 증가
3. 철스크랩 : 해외 불가피한 급등...국내 산발적 인상 전망
4. 철강재
 - 국내 주요 품목 보합세 지속...판재류 수요 부진, 철근 재고 타이트
 - 해외 중국 내수 가격 상승세 지속...겨울철 둔화 예상

시황분석리포트

11월 3주차 글로벌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FERRO INDEX] 글로벌 철강재 및 원료 수출입 가격

단위 : 달러/톤, CFR

		10-2주	10-3주	10-4주	11-1주	11-2주	11-3주	변동폭	
								일주일	1개월
	철광석(Fe 62%)	120	119	116	118	123	124	1	5
	원료탄(강점결탄)	127	129	131	133	149	154	5	25
철스크랩	터키 HMS 1&2	287	290	293	297	310	321	11	31
	亞 HMS 1&2	301	303	303	308	325	325	0	22
	일본 H2 (백엔 FOB)	282	290	300	300	315	330	15	40
	*H2 한국도착(천원)	330	330	345	345	350	370	20	40
	대만 컨테이너	265	275	280	288	298	300	2	25
열연	본계강철 한국향(FOB)	535	540	545	545	575	575	0	35
	중국 오퍼(FOB)	505	520	518	521	540	546	6	26
철근	중국 한국향(CFR)	520	520	520	520	520	*580	-	-
	중국 오퍼(FOB)	468	470	479	482	496	498	2	28
냉연	냉연코일(FOB)	605	615	615	625	655	655	0	40
도금	아연도금코일(FOB)	655	665	665	675	705	705	0	40
빌릿	흑해 수출(FOB)	413	410	412	413	427	435	8	25
슬래브	브라질 수출(FOB)	498	498	498	520	528	528	-	30

철광석 원료탄 : 스폿계약 11월16~17일 평균

철스크랩 : 최근 성약 및 오퍼 가격/페로타임즈 추정

중국 오퍼 : 무역업계 및 외신, 페로타임즈 추정

열연 냉연 도금재 : 본계강철 한국향 오퍼

* 용강강철 철근(10.0mm) 오퍼 기준

※ 최종 업데이트 11월17일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철광석

철광석 예상 빗겨간 반등...글로벌 철강 수요 및 생산 증가
2021년까지 강세 지속 전망...코로나19 회복세 '타이트'한 수급



▲ 원료 및 쇳물구매원가 현황

단위 : 달러/톤	철광석(Fe 62%)	원료탄(강점결탄)	쇳물구매원가
2020년 1월	93.2	158.2	276.9
2020년 2월	86.6	163.6	270.6
2020년 3월	87.9	165.9	274.5
2020년 4월	83.8	135.5	243.5
2020년 5월	92.0	121.2	245.4
2020년 6월	102.3	118.4	259.8
2020년 7월	107.7	121.3	270.8
2020년 8월	122.1	115.4	289.2
2020년 9월	123.5	130.9	304.0
2020년 10월	120.4	134.6	309.3
2020년 11월	120.9	145.5	311.3
전월대비	0.4%	8.1%	0.7%
	0.5	10.9	2.0
4월(저점) 대비	44.3%	7.4%	27.8%
	37.1	10.0	67.8
작년 12월 대비	32.2%	-2.1%	16.9%
	29.5	-3.1	45.0

철광석 10월 하락 조정 이후 11월 반등

- 중국의 철광석(Fe 62%) 수입 가격 17일 125.4달러
- 10월 말 대비 6.3%(7.4달러) 상승

원료탄 고공행진 지속

- 중국의 강점결탄 수입 가격 17일 기준 154.3달러
- 10월 말 대비 13.6% 상승

<상승배경>

1. 글로벌 철강사들의 생산증가에 따른 원료 수요 증가
2. 중국 시장 호조 역대급 조강생산 기록 지속
3. 중국 철광석 보유재고 타이트
4. 철강 수요산업 자동차 중심 구매량 증가
5. 철강 가격 동반 급등에 따른 철강사 마진 개선

철광석 가격은

중국의 겨울철감산 및 생산둔화로 연말까지 보합 혹은 소폭 하락 조정이 예상되나 연초 타이트한 수급 상황과 성수기를 대비한 철강사들의 생산 증가로 강세 가능성

철광석 원료탄 최근 일주일 가격 현황

단위 : 달러/톤	철광석(Fe 62%)	원료탄(강점결탄)	숯물구매원가
2020-10-29	115.9	135.3	295.1
2020-10-30	117.9	135.8	298.8
2020-11-06	118.1	143.9	305.5
2020-11-13	122.6	153.6	320.5
2020-11-16	123.2	154.3	322.1
2020-11-17	125.4	154.3	325.6
10월말 대비	6.3%	13.6%	9.0%
	7.4	18.5	26.8

*. 제공 : (주)페로타임즈

중국 조강량 6개월 연속 '9천만톤대'...연간 10억 톤 확실히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12>

페로타임즈 2020년 11월 18일자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6개월 연속 9천만 톤대를 기록했다. 현 추세라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억 톤을 돌파할 전망이다. 하루 평균 생산량은 5개월 만에 300만 톤 아래로 떨어졌다. 겨울철감산에 따라 생산 증가는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0월 조강생산량은 9220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했다. 5월부터 6개월 연속 9천만 톤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역대급 생산은 철광석 가격 급등의 배경이 됐다. 10월 철광석(Fe 62%) 수입 가격은 평균 12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5.8%나 올랐다.

생산은 최고치에서 둔화되고 있다. 하루 평균 생산량은 297만4000톤으로 5개월 만에 300만 톤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철강재 생산량은 1억1848만 톤으로 14.2% 증가했다. 지난 8월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치다.

중국은 현재 베이징 천진 허베이성 등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감산이 실시되고 있다. 수요는 건조한 상태다. 철강 가격은 열연 철근 모두 4000위안을 웃돌아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10월 조강생산량은 8억739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역대 처음으로 연간 10억 톤을 돌파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철강재는 10억8328만 톤으로 6.5% 증가했다.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철스크랩

해외 불가피한 급등...국내 산발적 인상 전망
미국 일본 공급제한...동남아 수요견조 '소외된 한국시장'



▲ 국내 동향

전기로 제강사 국내 가격 인상 '레이스'

해외 급등세로 수입여건 악화

국내 발생량 감소 '타이트한 수급' → 제강사 감산을 상쇄

11월 7일(영남권) : 대한제강 한국철강 동국제강(포항) 와이케이스틸이 인상을 실시
[참고 : 대한제강 단가 공지]

- 11/7(토) 생철, 중량 및 길로틴A 15원/kg 인 /경량 및 길로틴B/C 10원/kg 인상

11월 9일(중부 수도권) : 환영철강 동국제강(인천) 인상 참여

[참고 : 환영 동국 인상 공지]

환영철강 9(월)부로 전품목 +20원, 동국제강(인천) 같은 날 전품목 +10원(동국제강은 200톤이상 계약분 +10원 추가로 사실상 +20원/kg)

11월 13일 : 현대제철 마지막 인상 합류

[현대제철 당진공장 특별구매]

협력사 하치장 재고에 한하여 일부등급 특별구매

기간 : 11/13~16 (4일간)/품목 : 생압, 일반압축, 중A,B/단가 : +20원/kg

11월 14일 : 세아베스틸 11월 초 인상후 2차 인상

- 주간 인센티브 11/14일부 종료/11/16일부 전등급 15원 인상
- 시중 합금강(단척류) 입고 재개 → 장척류는 입고 제한 유지

11월 17일 : 현대제철(인천) 인상 합류

[현대제철(인천)계약분 시행]

경량류등급, 슈레더c을 제외 전등급 계약단가로 시행

기간 11월17일~11월23일/단가 기본단가에서+20원/대상 하치장.패밀리.유통

11월 18일 : 대한제강 2차 인상 실시

[대한제강 단가 공지]

- 적용일자 : 11/18(수)부터/전등급 10원/kg 인상중량b는 5원 인상

*(주)yk steel : 대한제강 동일

국내 고철 가격은 앞으로도 최소 강보합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해외 동향

미국 일본 급등세...터키 동남아 고철 철강재 가격 동반 급등

1. 터키의 수입 가격 11월 30달러 급등

- 미국산 HMS No.1&2(8:2) CFR 톤당 320.5달러 계약
10월 마지막주 290달러를 저점으로 30달러 급등
10월 말 미국 현지에서는 11월 20달러 이상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현실화

- 터키 철강시장은 호조 : 철근 수출 가격은 FOB 500달러까지 급등
철근 가격은 10월 중순 440달러에서 고철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록
터키 제강사들의 고철 구매 마지노선은 철근과의 격차 150달러(보수적으로 170달러)로,
현재는 추가 인상으로 구매할 여력이 있음

2. 아시아

- 대만 컨테이너 : 미국 HMS No.1&2(8:2) CFR 300달러 선 안착
- 일본산 H2 : 현대제철 17일 수입 입찰 오픈 FOB 3만2000~4000엔

※ 일본산 한국 격차 심화

일본 H2를 현재 FOB 3만3000엔으로 평가할 때 한국 도착도 가격은 37만 원

국내 경량A는 이제 30만 원(현대는 특구 제외 품목으로 여전히 28.5만 원)선에 올라선 상태.

제강사의 국내 구매 의존도 지속 관측

*. 제공 : (주)페로타임즈

[핫토픽] 일본 고철시장은 한국 제강사 ‘텃밭’ 이제는 ‘옛말’

베트남 철강사들은 올해 1~10월 일본산 철스크랩(고철) 수입량을 100만 톤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고철 시장은 현대제철을 필두로 한 국내 제강사들이 안정적인 고철 조달을 위한 ‘텃밭’으로 인식돼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시아 시세 역시 동남아 중심으로 전환됐고, 한국 시장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대제철은 과거와 달리 다른 제강사보다 높게 계약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베트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일본산 고철 수입량은 27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7%(96만 톤)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수입량은 250만 톤으로 26.6%(91만 톤) 급감했다. 한국에서 줄어든 물량이 고스란히 베트남 시장으로 흘러간 셈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전체로 보면 올해 고철 수입 규모는 한국의 2배에 이르고 있다.

베트남의 일본산 수입 증가는 최대 수출 국가인 미국의 공급이 부족해진 영향이 크다. 일본의 경우 비교적 수출 여력이 있었던 데다 근거리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실제 베트남의 미국산 수입량은 115만 톤으로 33.7%(18만 톤) 감소했다.

한국은 일본은 물론 미국 공급사들에게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특히 최근과 같은 가격 상승 국면에서 국내 제강사들이 양국에서 고철을 수입하기는 쉽지 않다.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높은 동남아 시장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 공급사들이 한국 시장을 도외시킨 지는 오래된 일이다”며 “제강사들은 국내 고철 구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고철업체들이 해외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도 (제강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의 1~10월 국가별 철스크랩 수입 실적

공급처	2019년	2020년	증감률	증감량
일본	175	271	54.7%	96
미국	115	76	-33.7%	-39
호주	45	26	-40.9%	-18
홍콩	31	36	14.1%	4
싱가포르	10	7	-29.5%	-3
기타	91	74	-18.6%	-17
합계	466	490	5.0%	24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철강재

중국 내수 가격 상승세 지속...겨울철 둔화 예상

▲ 중국 내수 가격 11월 폭등(11월 18일 상해 기준)

- 철근 4200위안 380위안(58달러) ↑ 열연 4250위안 190위안(29달러) ↑
- 냉연 5120위안 260위안(40달러) ↑ 도금재 5320위안 370위안(57달러) ↑

<상승배경>

11월 첫 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소식 무역갈등 해소 기대감

실질적인 상승동력은

겨울철 감산과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인한 **타이트한 수급 및 판매 증가**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친 11월 2주차 급등 이후 3주차(11/16~18일)에도
철근 70위안 열연 50위안 냉연 30위안 도금재 40위안 등의 상승세가 이어짐

※ 열연과 철근 가격 격차는 10월 초 300위안에서 18일 현재 50위안까지 급격히 축소
열연과 냉연도금재 가격 격차도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남

앞으로는

겨울철 수요 둔화는 현재의 폭등세를 하락으로 전환시킬 주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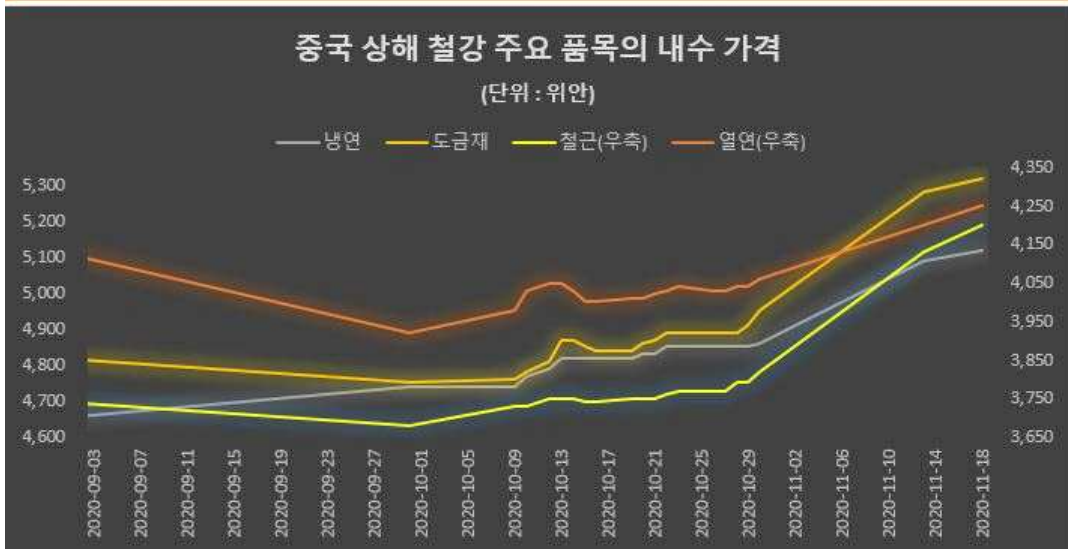
중국의 생산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겨울철감산은 작년보다 완화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중국 상해 지역의 주요 품목별 가격 현황

단위 : 위안	철근(우축)	열연(우축)	냉연	도금재	후판
2020-10-30	3,820	4,060	4,860	4,950	3,960
2020-11-13	4,130	4,200	5,090	5,280	4,020
2020-11-18	4,200	4,250	5,120	5,320	4,030
달러 환산 →	642	650	783	814	616
등락폭	철근	열연	냉연	도금재	후판
전주 13일 대비	70	50	30	40	10
11월 9~13일	200	20	120	140	50
10월 말 대비	380	190	260	370	70



▲ 중국 오퍼 가격

- 본계강철 한국향 2021년 1월 선적분 오퍼 가격 (FOB)
열연 575달러 산세 625달러 냉연 655달러 아연도 705달러 “전주와 동일”
- 철근 한국향 오퍼 (CFR)
사강강철 용강강철은 이달 초 10.0mm 기준 520달러에 오퍼했으나
미국 대선 결과 이후 폭등한 2주차에 오퍼를 모두 거둬들임
추가로 나온 비공식 오퍼는 용강강철 580달러로 이전보다 60달러 상승

▲ 국내 철강 시장

- 열연 : 포스코 대응재 기준 유통 가격 67만 원/후판은 59만 원
두 품목 모두 수요 및 가격이 부진한 상태이나 후판은 특히 부진
- 철근 : 상승 가능성 높음 : 국산 68만 원까지, 중국산은 62~63만 원
시중 재고는 타이트한 상태로, 일부 사이즈 결품현상.
중국 오퍼 가격 급등으로 국내 수입은 자연스럽게 차단된 상태
- 형강 : 국산 75만 원 포스코베트남 72만 원, 베레인/말레이시아 70만 원

국내 철강 주요 품목별 내수 가격

단위 : 만 원	열연		철근		형강			앵글 및 채널(잔넬)			
	포스코 대응재	중국산 (SS400)	국산	중국산	국산	포스코 베트남	바레인 말레이시아	국산 채널	국산 앵글	수입산 앵글	수입산 채널
2020-06-29	59	58	64	61	78	72	70	69	69	56	58
2020-07-27	59	58	65	62	72	71	69	67	67	56	58
2020-08-31	64	61	65	62	74	70	68	67	67	56	58
2020-09-28	67	65	65	62	74	72	70	64	64	58	60
2020-10-26	67	65	67	63	75	72	70	65	67	58	60
2020-11-16	67	65	68	62	75	72	70	65	67	58	60

HOT ISSUE

중국 철강價 단기폭등 ‘거품’ 지적…“급락 리스크 대비해야”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40>

페로타임즈 11월13일자



중국발 가격이 단기 폭등한 데 대해 '거품'이라는 지적과 함께 급락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작년 11월에도 급등을 기록한 이후 이듬해인 올해 3월 초까지 폭락세가 이어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철광석 역시 철강 가격 급등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120달러대의 강세는 하락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철강 가격은 하반기에만 100달러 이상 급등했다. 미국 대선을 전후, 약 보름 동안 40달러 이상 오르면서 작년 성수기 최고치인 3월 수준에 도달했다.

하반기 중국발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이후의 일시적인 수요증가와 타이트한 수급상황, 중국 시장의 호조, 철강사들의 가격 인상 의지가 반영됐다. 이에 비해 11월 단기 폭등은 미국 대선 이후의 막연한 개선 기대감에 기인한 면이 크다는 점에서 ‘거품’이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현재 중국의 철강 수출 가격은 열연(SS400) 기준 FOB 톤당 약 540달러다. 작년 최고치인 3월 545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철근은 약 500달러로 이 역시 작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하락을 우려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최근의 급등은 겨울철 비수기를 앞두고 나타났다. 수요는 갈수록 둔화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일시적으로 증가한 철강 수요도 점차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현재 중국 내수 가격은 이미 고점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중국 내수 가격은 작년 겨울철 감산이 본격화된 11월에도 비슷한 급등이 나타났다. 시장 지표인 철근 내수 가격은 작년 10월21일 3650위안에서 한 달 뒤인 11월25일 4160위안까지 530위안 급등했다. 이후 가격은 이듬해인 올해 3월2일 3370위안까지 810위안이나 폭락했다.

특히 열연 내수 가격은 현재 4200위안을 웃돈다. 작년 고점인 12월13일(3980위안)보다 크게 고평가 돼 있다. 하락 조정은 다른 품목에 비해 빠르고,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통상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마진폭을 확보하게 되면 최대 판매에 나선다. 선물시장의 투기세력과 철강 유통시장이 이를 주도하는 성격이 짙다”면서 “최근의 폭등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인위적인 상승의 성격이 짙고, 이후에는 급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철광석 가격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철강업계에서는 당초 4분기 철광석 가격은 100달러 초반대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봤다. 이와 달리 이달 120달러 이상으로 초강세장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 이 역시 시장 모멘텀과는 달리 철강 폭등에 편승한 면이 크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철강 원료 가격은 급등하는 상황에서 철강 가격은 하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근의 급등 이후의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